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한지현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1,552명의 자료였으며, 분석변수는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행복감, 학교생활, 문제행동 척도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공동양육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중간갈등형', '높은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합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학업수행적응이 높고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분석,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I. 서론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양육참여가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3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돌봄 부담정도와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로 아내가' 또는 '대체

* 이 논문은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2017.10.20.)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로 아내가' 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여성가족부, 2015). 이처럼 부부의 공동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 현실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공동양육을 고려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양육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Minuchin(1974)에 따르면 부모가 가족 구조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의 통솔을 공유하는 것이며, McHale(1995)에 의하면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가치, 참여, 사고 및 정서 등에 대해 공유하며 파트너로서 서로의 양육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또한 Feinberg(2003)는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부모공동양육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 보이는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McHale, Rao, & Krasnow, 2000).

실제 부모공동양육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혼 부부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후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일치되고 갈등이 적을수록, 자녀들이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보이며 문제행동을 더 적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elsky, Cmic, & Gable, 1995; Maccoby, Depner, & Mnookin, 1990). 이후에는 이혼 가족 뿐 아니라 양친 가족의 경우까지 확장되어 부모공동양육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aril, Crouter, & McHale, 2007; Feinberg, Kan, & Hetherington, 2007; McHale et al., 2000; Scrimgeour, Blandon, Stifter et al., 2013; Solmeyer, Feinberg, Coffman et al., 2014). 국내에서는 최근 부모공동양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공동양육의 관련 변인을 밝힌 연구(김수진·도현심, 2001; 김재원·남은영, 2018; 이경선, 2017)에서부터 부모공동양육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태도의 일치여부에 따른 부부공동양육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거나(박익새·남은영, 2015; 임지영·이윤정·배윤진, 2015; 조윤진, 2017)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금주희·양연숙, 2017; 김순임, 2014; 박익새·남은영, 2015; 이미나·차기주·정미라, 2016; 최미경·도현심·김민정 외, 2013)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유아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아동의 발달적 변화와 더불어 이 시기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모공동양육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적응 관련 변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공동양육을 각각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한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다. 집단을 분류할 때 기존의 변수 중심적(variable-oriented) 접근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관찰대상자중심(person-oriented)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Bergman & Magnusson, 1997). 이 접근법은 개인 내적 혹은 집단 내에서 변수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발견된 집단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집단에 따라 변수들의 영향이 어떠한지 규명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으로는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을 다양한 방향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으며(문민정,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공동양육태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전환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장이 가정에서 벗어나 이웃과 학교로까지 확대되는 시기로 아동에게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화를 이루는 중요한 환경이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여부는 아동의 현재의 초등학교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중·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인지·사회적 발달의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성민선·이상오·정무성·정은, 1998).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중에 부모관련 변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증가하고(정은진, 2002), 아버지가 자율적, 합리적, 애정적일수록,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 성취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애옥, 2008). 부모의 개별 양육태도에서 더 나아가 부모공동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

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가족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3자간에 독특한 맥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된다(Jouriles, Murphy, Faris et al., 1991).

아동의 적응 변인의 또 다른 측면으로 문제행동을 들 수 있는데,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크게 내면화, 외현화 문제로 구분되는데(Achenbach, 1991),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Hale et al., 2000). 실제로, 협력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Abidin & Brunner, 1995). 반면에, 가족의 지지와 조화의 수준이 낮고 적대적-경쟁적 부모공동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cHale & Rasmussen, 1998). 또한, 부부간의 일치가 적으며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과잉행동,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Shoppe-Sullivan, Magelsdorf, & Frosch, 2001). 국내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이 높고,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미경 외,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이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品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순임, 20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공동양육이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부모공동양육을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공동양육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로는 행복감, 학교적응, 문제행동을 고려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공동양육에 따라 유사한 집단을 유형화할 때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셋째,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패널로 시작된 한국 아동패널연구는 1년을 주기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연구 착수 당시 신생아였던 패널은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201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령기에 들어섰다. 초등학교 입학은 많은 변화를 동반하는데 국가 의무교육과정인 형식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고, 생활환경이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또래관계의 규모와 중요성도 커진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의 인지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등은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 사물에 대해 정신적 활동을 통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이해 및 내면화, 조절 등이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 발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은설·배윤진·조숙인 외, 2016, p.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2015년에 조사된 8차년도 자료는 총 1,598가구의 부모와 아동 및 아동이 참여하는 학교의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행동 문항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변수에 성실히 응답한 1,5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아동, 교사의 응답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7세 3개월이었다.

<표 1> 분석대상특성

변수		N (%)		변수		N (%)	
아동	성별	남	788 (50.8)				
		여	764 (49.2)				
아버지	연령	20대이하	3 (0.2)	학력	고졸이하	411 (26.9)	
		30대	650 (41.9)		전문대졸	306 (19.7)	
		40대	845 (54.4)		대졸	644 (41.5)	
		50대이상	30 (1.9)		대학원졸	166 (10.7)	
		무응답	24 (1.5)		무응답	25 (1.6)	

변수		N (%)	변수		N (%)	
어머니	연령	20대이하	18 (1.2)	학력	고졸이하	450 (29.0)
		30대	1053 (67.8)		전문대졸	428 (27.6)
		40대	473 (30.5)		대졸	583 (37.6)
		50대이상	6 (0.4)		대학원졸	89 (5.7)
		무응답	2 (0.1)		무응답	2 (0.1)
전체		1552 (100.0)				

2. 분석변수

가. 부모공동양육

부모공동양육은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동양육척도는 가족통합(Family Integrity) 7문항, 비난(Disparagement) 3문항, 갈등(Conflict) 2문항, 훈육(Reprimand) 4문항의 네 가지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가족통합은 가족 간의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부모의 시도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비난은 배우자의 권위와 신뢰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를 반영하며(예: 자녀에게 배우자에 관한 나쁜 말이나 배우자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갈등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부모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배우자와 말싸움을 한다). 훈육은 부모의 제한설정을 나타내는 문항이다(예: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배우자보다는 내가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아버지의 경우 가족통합이 .89, 비난이 .39, 갈등이 .78, 훈육이 .14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가족통합이 .84, 비난이 .47, 갈등이 .81, 훈육이 .10으로 훈육에 있어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신뢰도에 문제를 보여 훈육요인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공동양육 척도 자료를 Ve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1요인에는 가족통합 하위요인이 속하였으며, 2요인에는 비난과 갈등 하위요인이 속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공동양육 척도 자료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충실하되 신뢰도를 고려하여 가족통합, 비난, 갈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양육척도를 활용한 잠재집단 분석에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

타난 어머니가 보고한 공동양육척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2〉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

문항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4	함께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	.82	
3	함께 있을 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	.81	
5	배우자와 아이가 함께 놀이를 하도록 도움	.79	
13	배우자 없을 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말	.74	
14	배우자 없을 때, 배우자를 언급하거나 상황에 포함	.70	
2	배우자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	.64	
1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	.62	
10	배우자와 긴장된 분위기 조성, 빈정거림		.84
11	배우자와 언쟁		.67
16	자녀에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함		.54
9	배우자가 아이를 훈육할 때 못하게 하거나 제한		.45
15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말을 함		.44

나.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이 보고한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인 패널 아동에게 면담을 통해 질문을 하고 응답내용을 조사자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한 문항으로 아동이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행복감에 대해 보고하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행복감은 MCS(Millennium Cohort Study, 2008)에서 사용한 척도로 일상생활의 각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는 총 6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에 대하여 조사자는 아동의 응답을 돕기 위한 표정카드를 제시하며 아동이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도록 질문을 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표정 그림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주관적 행복감이 .66, 전반적 행복감이 .67이었다.

다. 아동의 학교생활

아동의 학교생활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5문항의 척도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아동의 평소 습관이나 행동 등에 대해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학교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교사가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 교사의 이메일 주소로 웹사이트를 발송하여 온라인으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7월 24일에서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아동을 한 학기 이상 지켜본 뒤 아동에 관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83~.95로 나타났다.

라.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hild Behavior Check List for Ages 6-18: CBCL 6-1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2001)이 개발한 CBCL을 오경자·김영아·하은혜 등(201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이다. 총 120문항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며 9개의 하위척도(증후군 척도 8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문제행동 심각도의 경우 동일한 점수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점수 대신 T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으로 기존의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는 다르다

(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집단을 분류한다는데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모형을 설정한 뒤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확률을 통해 해석이 용이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도 군집분석과 같이 잠재집단이 명확히 구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보다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확률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형기반 방식으로 군집분석에 비해 분류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agidson & Vermunt, 2002). 본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Mplus 7.11을 활용하였다. 또한 잠재 집단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 특성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참여자 1,552명의 동일한 가정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공동양육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하위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있어 더 배우자를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3>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공동양육 차이

(N=1,552)

부모공동양육	아버지 M (SD)	어머니 M (SD)	Paired t
가족통합	5.15 (.02)	5.36 (.91)	8.02***
비난	3.07 (.95)	3.00 (1.07)	-2.12*
갈등	2.78 (1.29)	2.71 (1.38)	-2.02*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행복감, 학교적응, 문제행동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의 평균

($N=1,552$)

주요변수		$M (SD)$	범위
아동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3.20 (.53)	1-4
	전반적 행복감	3.25 (.47)	1.5-4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4.08 (.94)	1.09-5
	학업수행적응	3.83 (.85)	1-5
	또래적응	3.94 (.80)	1-5
	교사적응	4.00 (.75)	1.4-5
문제행동	총문제행동	49.81 (9.30)	30-99
	내재화문제	49.70 (8.63)	37-100
	외현화문제	51.00 (8.88)	37-99

아동의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학교적응도 평균 3.83에서 4.08까지 범위를 이루며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은 T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문제행동 척도의 준임상 범위가 60점 이상임을 감안할 때 평균이 49점에서 51점 사이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전히 공동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난 어머니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을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늘려가며 산출되는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Entropy와 같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LMR-LRT와 BLRT값이 유의미하고 Entropy값이 높을수록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보는데,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와 3개로 하였을 때 LMR-LR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들 중에서 AIC와 BIC값이 더 작은 3개 계층 모형이 부모

공동양육유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사례수를 고려해본 결과 3개 집단이 실제적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각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의 비율이 최소한 1%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Jung & Wickrama, 2008)을 충족하였다.

〈표 5〉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

(N=1,552)

잠재 집단수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Entropy	잠재집단별 사례수
1	13564.09	13612.22	13583.62				1552
2	13410.32	13479.84	13438.54	156.44***	161.76***	.713	1018+534
3	13280.07	13370.97	13316.97	133.70***	138.25***	.812	845+594+113
4	13264.67	13376.96	13310.25	22.63	23.40***	.845	7+590+116+839
5	13225.24	13358.92	13279.50	40.39	41.76***	.815	688+6+70+334+454

*** $p < .001$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별 비율과 표준화된 평균점수를 제시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N=1,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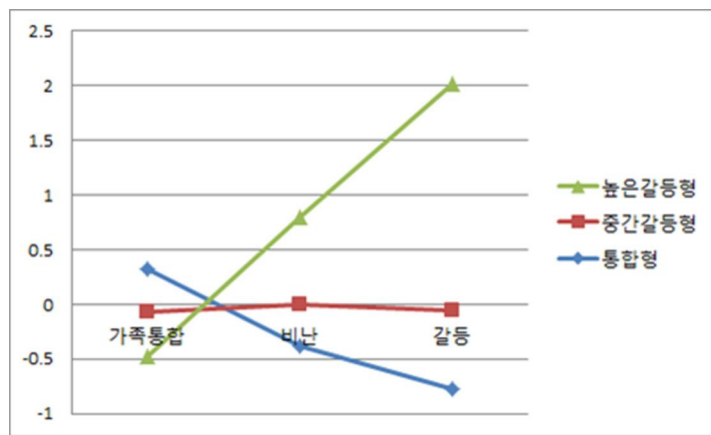
잠재계층 부모공동양육	통합형 (n=845, 54.4%)	중간갈등형 (n=594, 38.3%)	높은갈등형 (n=113, 7.3%)	F (Scheffe)
가족통합	0.33	-0.40	-0.40	124.23*** (c1)c2,c3)
비난	-0.38	0.38	0.80	174.78*** (c1c2c3)
갈등	-0.77	0.71	2.07	3832.41*** (c1c2c3)

주 : 최종군집의 표준화된 Z점수(M=0, SD=±1)를 제시함.

*** $p < .001$, c1: 통합형 집단, c2: 중간갈등형 집단, c3: 높은갈등형 집단

첫 번째 프로파일은 가족통합 평균이 가장 높고 비난과 갈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사례 중 54.4%(845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따라서 이 프로파일은 '통합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가족통합이 낮으며($M=-0.40$), 비난($M=0.38$)과 갈등($M=0.7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중간 정도로 나타나 ‘중간갈등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38.3%(594명)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가족통합의 평균이 낮으며 비난과 갈등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사례 중 7.3%(113명)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이 프로파일은 ‘높은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프로파일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3.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아동의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감에서 잠재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3, p<.10$). 통합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학업수행적응에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통합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F=2.54, p<.10$).

다음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각 문제행동 척도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통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총문제행동($F=16.69, p<.001$), 내재화 문제행동($F=10.86, p<.001$), 외현화 문제행동($F=11.03, p<.001$)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

(N=1,552)

구분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			F (Scheffe)
		통합형 M (SD)	중간갈등형 M (SD)	높은갈등형 M (SD)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3.23 (.52)	3.16 (.53)	3.15 (.60)	2.73 [†]
	전반적 행복감	3.25 (.46)	3.24 (.49)	3.31 (.40)	1.01
학교 적응	학교생활적응	4.08 (.94)	4.06 (.94)	4.11 (.90)	.13
	학업수행적응	3.88 (.84)	3.76 (.86)	3.77 (.85)	2.54 [†]
	또래적응	3.97 (.81)	3.91 (.80)	3.95 (.74)	.69
	교사적응	4.01 (.73)	3.98 (.77)	3.99 (.84)	.25
문제 행동	총문제행동	48.57 (8.94)	51.28 (9.45)	51.37 (9.80)	16.69 ^{***} (c1<c2,c3)
	내재화문제	48.77 (8.28)	50.81 (8.97)	50.89 (9.41)	10.86 ^{***} (c1<c2,c3)
	외현화문제	50.03 (8.25)	52.14 (9.59)	52.24 (8.74)	11.03 ^{***} (c1<c2,c3)

[†] $p < .1$, ^{***} $p < .001$ c1: 통합형 집단, c2: 중간갈등형 집단, c3: 높은갈등형 집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공동양육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있어 더 배우자를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다른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지지와 비난을 받는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지지적 공동양육 수준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난적 공동양육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영 외, 2015). 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공동양육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

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지영 등(2015)의 연구에서 보호나 양육이 위주가 되는 유아기 자녀의 돌봄에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 참여수준이 높지 않아 배우자인 아내에게 좀 더 협조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아동기 부모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어머니의 개입적인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를 더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젠더규범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공동양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에 있어서 주책임자인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난이나 갈등을 표현하는 대신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통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 수준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공동양육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은 육아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면이 여전히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양육참여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관찰이나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자료 수집을 통해 부모의 실제적인 공동양육 수준뿐만 아니라 서로의 양육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공동양육태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중간갈등형’, ‘높은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부모공동양육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54.4%)을 보인 ‘통합형’은 가족통합 평균이 가장 높고 비난과 갈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나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두 집단은 가족통합 평균이 같았으며 비난과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에 집단을 구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을 명명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부모공동양육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하위요인의 일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연구(박익새·남은영, 2015)가 있었다. 지지와 비난행동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지지적 유형과 비난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지지적 일치, 비난적 일치,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다소 임의적인 기준점수에 의한 집단 구분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설정한 뒤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집단수를 결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중간갈등형과 높은갈등형 집단이 통합형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권위와 신뢰에 대해 비난이나 무시를 하고 부모 간에 갈등을 보일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다. 이는 가족의 지지와 조화의 수준이 낮고 적대적-경쟁적 부모공동양육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졌으며(McHale & Rasmussen, 1998), 부부간의 일치가 적고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과잉행동,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냈다(Shoppe-Sullivan et al., 2001)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불안과 과잉행동, 또한品行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김순임, 2014; 최미경 외, 2013)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구(Cartwright et al., 2004)에 근거할 때, 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있어서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부모공동양육은 아동의 행복감이나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유의도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적응 중 학업수행적응에서 집단 간에 경계선 상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지며 차이를 보였다. 즉, 통합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과 학업수행적응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통합형 집단은 부모공동양육 하위요인 중 가족통합 점수가 가장 높고 비난과 갈등이 가장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이 기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문민정, 2009), 부모가 돌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진 연구결과(이은진, 2011)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증가하고(정은진, 2002), 아버지가 자율적, 합리적, 애정적일수록,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 성취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이애옥, 2008)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부모공동양육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McHale et al., 2000)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보다 다양한 측면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비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에 있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고려해볼 때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데 반해, 전반적 행복감은 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을 묻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게는 각각을 변별하여 응답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의 경우 전이기에 따른 초기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으나 아동기의 학교적응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시기별 학교적응의 변화추이에 따른 부모공동양육의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이들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동양육척도는 하위요인에서 훈육요인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척도이다. 예비조사를 실시했는지라도 한국판의 타당화를 위해 척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김수진과 도현심(2001)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요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구성되는 문항도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다른 논문(최민경, 2017)에서는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패널자료 7차(2014년)자료에서 조사된 공동양육척도의 내적일치도 신뢰도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분석 결과에서도 훈육요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과 관련된 문항이 우리나라 연구대상 부모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상호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공동양육의 문제에서 자녀양육 참여 시간이나 분담 비율과 같은 양적인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향후 국내 측정도구 개발이나 국외의 측정도구 수정, 보완 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척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부와 모의 공동양육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하위요인의 차이 분석 뿐만 아니라 부모공동양육 유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부부 간의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변인을 탐색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갓 접어든 시기로 아직 과도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아동패널자료가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부모공동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양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초기 하는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아동기 부모의 공동양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배우자에게 비난을 하거나 지지 또는 가족통합적인 공동양육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 간에 인식차이를 보인 연구결과는 공동양육의 양적 증가만이 더 이상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육아휴직제도,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아버지할당제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녀돌봄휴가제도와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제도도 추진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 2. 6.). 이처럼 자녀를 위한 공동양육의 양적 증가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함께 하는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인 것이다. 어머니에 비해 양육 돌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버지에게 질 높은 양육기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실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육아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렵고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나 육아지원제도 사용의 부족 등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이옥경·문정희·박나리, 2016). 부모역할이 서툴며 상대적으로 배우자에게 양육부담을 떠맡기게 되는 아버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과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양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부부 간 자녀양육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참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방식을 고안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 및 아버지역할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환경을 더욱 확대 할 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기 아동기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을 위해 부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공동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권위와 신뢰에 대해 비난이나 무시를 하고 부모 간에 갈등을 보일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과도 밀접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정책으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자녀의 발달 특성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개인마다 이해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부모의 교육적 의미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부부간에 협력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 협력적인 양육 동맹을 위한 요소로 부부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Van Egeren & Hawkin, 2004)을 꼽을 수 있는데, 공동양육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부부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어왔다. 부모의 공동양육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부간에 가족통합적인 의사소통이나 행동을 하고 비난이나 갈등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부상담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로서 배우자와의 인식의 차이를 지각하고 자녀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조율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앞서 올바른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부모로서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여 나아가 국가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금주희·양연숙(2017). 부모의 부부공동양육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주의집중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문집*, 35(2), 213-238.
- 김수진·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의 관련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순임(2014). 유아의 기질과 부모공동양육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2016(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35. p.15-16.
- 김재원·남은영(2018). 부부관계 유대감, 부부공동양육 및 유아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0(1), 97-116.
- 문민정(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 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새·남은영(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8(4), 135-153.
- 성민선·이상오·정무성·정은(1998).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복지, 1, 179-223.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분석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2018. 2. 6.)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90400017.HTML?input=1179m>에서 2018년 8월 8일 인출함.
- 오경자·김영아·하은혜·이혜련·홍강의(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6-18. 서울: 휴노컨설팅.
- 이경선(2017).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관련변인: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37(4), 421-434.
- 이미나·차기주·정미라(2016).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229-251.
- 이애옥(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문정희·박나리(2016). 부산지역 아빠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p.1-201.
-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이윤정·배운진(2015). 양친가정 내 공동양육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65-92.
- 정은진(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자아개념·학교적응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진(2017).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경험. 사회과학연

구논총, 33(2), 57-115.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최미경·도현심·김민정·신나나(2013).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25-39.

최민경(201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부모공동양육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idin, R. & Brunner, J.(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101*, 213-232.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Baril, M. E., Crouter, A. C., & McHale, S. M. (2007). Processes linking adolescent well-being, marital love, and co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645.

Belsky, J., Crnic, K., & Gable, S. (1995). The determinants of coparenting in families with toddler boys: Spousal differences and daily hassles. *Child development*, 66(3), 629-642.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291-319.

Cartwright. H., Roberts, P., Fothergill, & Harrington, S. (2004). Systematic review of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 therapies for childhoo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43(4), 421-436.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 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Feinberg, M. E., Kan, M. L., & Hetherington, E. M. (2007).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coparenting conflict on parental negativity and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687-702.

Jouriles, E., Murphy, C. M., Farris, A. M., Smith, D. A., Richters, J. E., & Waters, E. (1991). Marital adjustment, parental disagreements about childrearing

- and behavior problem in boys: Increasing the specificity on the marital assessment. *Child Development*, 62(6), 1424-1433.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ccoby, E., Depner, C., & Mnookin, R. (1990). Coparenting in the second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141-155.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 McHale, J. & Rasmussen, J. (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nd-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39-59.
-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85-996.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McHale, J. P., Rao, N., & Krasnow, A. D.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111-118.
- MCS(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에서 2018년 1월 21일 인출함.
-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C., & Frosch, C. A. (2001). Coparenting,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526-545.

- Scrimgeour, M. B., Blandon, A. Y., Stifter, C. A., & Buss, K. A. (2013). Cooperative coparenting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3), 506-511.
- Solmeyer, A. R., Feinberg, M. E., Coffman, D. L., & Jones, D. E. (2014). The effects of the family foundations prevention program on co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mediation analysis. *Prevention Science, 15*(2), 213-223.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30일 / 게재 승인: 9월 18일
- 교신저자: 한지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narahan1217@hanmail.net

Abstrac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ccording to Types of Coparenting Through Analysis of Latent Profile

Jihyeon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ofiles of coparenting using the 8th(2015) data of the Korea Child Panel through the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s. The participants were 1,552 first grade children. The analysis variables were coparenting, children's happiness, school adaptation, and problem behavior scal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parental coparenting. Mothers reported more integrity behaviors to their spouses than fathers. Secon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hree coparenting profiles were identified: 'integrity', 'moderate conflict', and 'high conflict'. Third, the integrated group showed higher subjective happiness and academic adaptation of children and less problematic behaviors than the other groups.

Key words: coparenting,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children